

“도민과 함께 만들어요”...홍예공원 명품화 ‘첫 삽’

제6차 헌수 기부금 전달식
누적 모금액 26억 3900만 원

도민 참여 숲 첫 헌수목 식재
7월까지 1차 식재 마무리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내 조성 중인 도민 참여 숲에 첫 헌수목을 심으며,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의 첫 삽을 떴다.

도는 4월 11일 홍예공원에서 도민 참여 숲 제6차 헌수 기부금 전달식 및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도민 참여 숲은 개인과 기관·협회·단체 등으로부터 헌수금을 받아 나무 1000그루를 심고 편의시설을 홍예공원 곳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하며, 목표액은 100억 원이다.

도는 이날 첫 헌수목을 심는 식재 행사를 시작으로 둥근소나무 등 209종을 이식 및 제거하고 왕벚나무 등 157종을 심는 1차 식재를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목은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이팝나무, 참나무 등 많은 수종을 고루 심을 예정이다.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활엽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개량과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경시설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번 제6차 전달식에서는 ▲계룡건설이 1억 원(회장 이승찬) ▲린데코리

아가 7000만 원(대표 성백성) ▲금성백조건설이 5000만 원(대표 원광섭)을 기부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회장 최길학)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윤경구) ▲홍성군산림조합(조합장 윤주선) 각 3000만 원을, ▲예산군산림조합(조합장 임운규) ▲재일충청협회(회장 류기환) ▲주식회사보령(대표 장두현) ▲지에스아이(회장 이계협)가 각 2000만 원을, ▲동신포리마(대표 박영배) ▲세움환경(대표 이호용) ▲에스제이조경(대표 정동복) ▲열방웬스(대표 김묘열) ▲한울조경(대표 정용욱) ▲합자회사 삼성전기(대표 이영재) ▲홍성낙농협동조합(조합장 최기생) ▲홍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대영)이 각 1000만 원을 냈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운영위원회(대표 차경래) ▲삼화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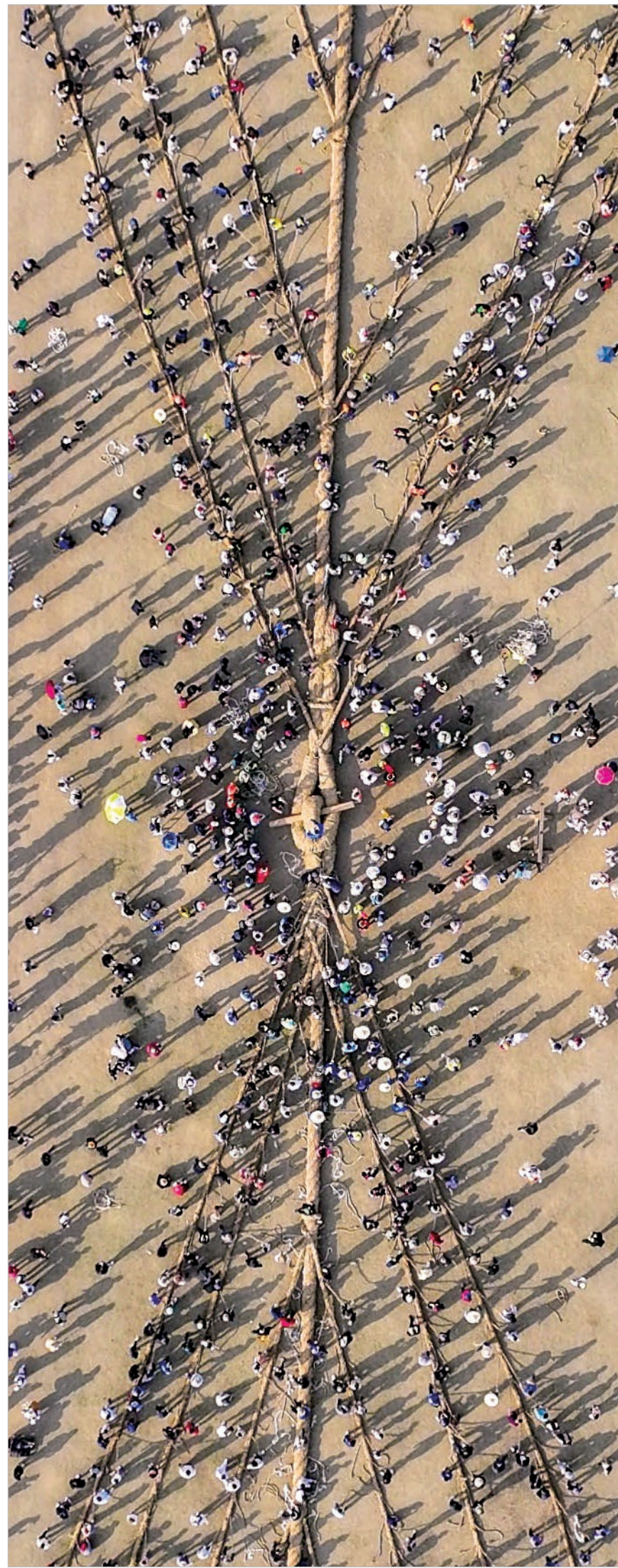
텍(대표 이창용) ▲서산의료원(원장 김영환) ▲수림조경건설(대표 민찬희) ▲와이앤조경(대표 윤강호) ▲우림산전(대표 최지현) ▲조암건설(대표 이석원) ▲주식회사드림조경(대표 이일용)이 500만 원씩을, ▲고려도건 주식회사(대표 한모현) ▲태경식품(회장 이성찬)이 300만 원씩을, ▲대한정보통신(대표 오용학) ▲동양테크원(대표 김지평) ▲사단법인내포문화조각가협회(회장 이진자) ▲삼성솔루션(대표 손봉환) ▲삼성튼튼마취통증의학과의원(원장 황성하)이 200만 원씩을, ▲참그로(대표 윤환원)가 100만 원을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해 각각 보냈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기업·단체 등의 기부금까지 제6차 모금액은 5억 5600만 원이며, 1~5차를 포함한 누적 모금액은 26억 3900만 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유치과 041-635-3391



도민참여의 숲 첫 헌수목 식재행사에서 헌수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 이용록 홍성군수(다섯번째), 최재구 예산군수(여섯번째).



세계인의 축제 기지시줄다리기 14일 열린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모인 시민과 관광객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힘껏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500여 년 역사의 기지시줄다리기축제는 짚으로 만든 약 40t, 총 길이 200m, 지름 1m의 줄을 당기면서 나라의 평안과 안녕, 풍년을 기원해왔던 전통민속축제이다. 1982년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올해 축제에는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된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외에 주한 외교사절단과 주한 미군들이 방문해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드론촬영/당진시

“도정-도민 잇는 가교...집까지 행복뉴스 배달”

충남도정신문 1000호 기념 축하



도정과 도민을 잇는 창(窓), 충남도정신문의 1000호 발행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정신문은 도정의 실록(實錄)이자 도민의 사초(史草)입니다. 1990년 지방자치시대 부활부터 1996년 개도 100주년, 2012년 내포시대 개막,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까지 충남이 이뤄온 모든 도전과 성취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힘센충남이 추진한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탄소중립경제 ▲베이벨리 메가시티 ▲충남형 저출산 대책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도 지면에 쫓겨 있어 있습니다. 도정신문 1000호의 역사를 힘센충남이 쓰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도정신문은 또한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架橋)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집행이 아닙니다. 홍보

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이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힘센충남은 도정신문을 통해 늘 열린 자세로 도민과 소통해왔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모바일 도정신문과 기획보도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열린 도정이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포칼럼’과 ‘청년농부가 간다’ 등 양방향 소통채널로서 도민의 생각과 의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신문이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을 전달하는 매신자로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도정신문 1000호라는 빛나는 이정표는 새로운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길은 민선 8기가 더 좋은 정책과 성과로 기뻐거리게 만들 때 열릴 것입니다. 힘센충남은 도민들께 더 행복한 뉴스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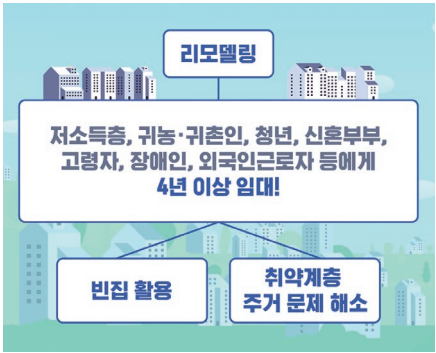
충남 방문의 해	3면
도정신문 1000호 연보	8면
도정신문에 바란다	9면
독자 인증샷 이벤트	10~11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6면

빈집 활용 청년주택·도시심터 조성

올해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보일러 교체 등 리모델링 지원
빈집 재개발·직권 철거 추진도

충남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거나, 빈집을 헐어낸 뒤 철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 ▲빈집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총 4843동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당시 4447동에서 2021년 1191동, 2022년 1166동의 빈집을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3년새 2700여 동이 늘어난 셈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도내 빈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30개 동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공모로 빈집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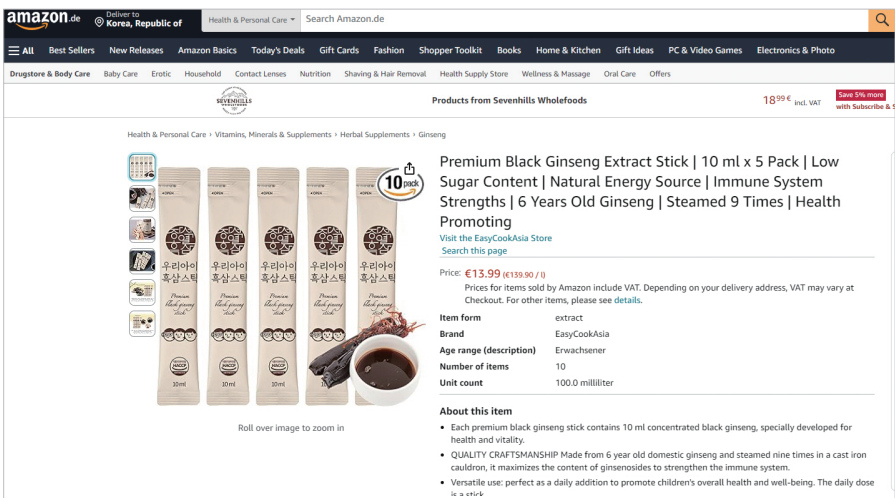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지원금은 1동 당 최대 7000만 원이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2동, 2023년 2동에 이어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천안과 아산 2개 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동으로, 1구 당 1000만 원 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건축도시과 041-635-4656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 뚫었다

도내 13개사 독일 아마존 입점
홍삼 가공품·고추장·된장 등 식품



독일 아마존 홈페이지 캡처.

잠재고객 대상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전세제를 상대로 운영 중인 만큼 최첨단 물류센터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집착에 가까울 만큼 고객 편의

에 충실하는 경영철학으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폭넓은 신뢰를 얻으며,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세계 최고 온라인쇼핑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1

체코·헝가리 중동부유럽 진출길 확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길 확대를 위해 ‘중동부유럽’ 시장 개척에 나선다. 도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동부유럽 경제의 중심지인 체코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원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할 기업 20개사를 19일까지 모집,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식품품, 뷰티, 생활용품 등 생활소비재와 관련된 기업을 중점 모집한다. 휴·폐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제·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도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에서 하면 된다. 유럽 동부 중앙에 위치한 체코·헝가리는 유럽시장 진출 관문으로서의 전

박적 가치를 보유한 나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수 대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출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도는 참가업체에 현지 매장 입점을 후속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독일 해외사무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1

도는 농어촌 지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병원선 등에 공공보건 의사 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보건지소 순회진료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 보건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정책과 041-635-4301

“청년농 3000명 유입 속도내야”

제58차 실국원장회의 개최
서천특화시장 적극홍보 주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스마트팜 841ha(250만평) 조성 및 청년농 3000명 유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 5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청년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 인증제를 통해 30명의 예비 청년농을 선발했다”며 “이들은 도가 설계한 금융·시공·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도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 단지화를 하면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목표나 의욕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유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대규모 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청년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 인증제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3000명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100여 명 수준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을 관련 실국에서 논의해서 속도를 내면서도 모두가 공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시상설시장은 기존 특화시장 주차장 부지에 수산동과 일반동 등 1310평 규모로 227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다. /공보관 041-635-4917

“천안·아산 이민청 설립 최적지”

유치 전략 연구 결과 발표
균형발전·입지여건 등 감점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도는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윤항희)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정부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면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놴. 특히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중앙부에 위치한 데다,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업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20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충청남도를 함께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을 모십니다!

Start up the Innovation

- 입문·경영·실습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 청년농 2억원까지 무담보·무보증 금융지원
- 온실 신축 18~25% 할인, 자부담 분납 및 납부유예 시공지원
- 연소득 5천만원 보장 경영컨설팅 지원

*문의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4043/4050

놀거리·먹거리·볼거리 가득한 충남 휴양지로 출근해요



충남도는 2025~2026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29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을 2025년 4000만명, 목표연도인 2026년까지 50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 6위권인 관광객 수를 3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충남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정신문은 지령 1000호를 시작으로 도의 새롭고 다양한 관광 정책을 연말까지 나누어 소개한다. <편집자주>

① 위케이션 충남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민선8기 관광분야 핵심정책인 ‘위케이션 충남’의 올해 사업 진행을 위해 참가자를 본격 모집한다.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인의 새로운 근무형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새로운 직장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위케이션 충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위케이션은 지난해 진행된 보



령, 부여, 태안, 예산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공주, 천안, 아산, 홍성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숙박을 더욱 다양화하고, 체험활동을 늘렸다. 위케이션 충남은 참가비용을 내면 지역 호텔, 리조트에서 업무를 하고, 인근 관광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보령시의 경우 숙소는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호텔 솔레르와 한화리조트를 활용한다. 바다 위에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짚라인 트랙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업무공간은 보령머드테마파크 내 회의실이다. 부여군은 롯데리조트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사비123창작센터나 백제시대 인공연못인 공남지의 트레블라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백제왕궁을 재현한 백제문화단지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태안군은 바다가 보이는 베이브리즈와 아일랜드 리솜을 숙소로 사용하고 근처 카페와 사무실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한다. 천리포수목원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예산군은 스피라스 리솜에서 숙박을, 호텔 내 비즈니스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예약호 모노레일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수택사, 예당호, 황새마을, 윤봉길 생가지 등 관광지와



태안군 위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백종원시장으로 유명한 예산 전통시장도 둘러 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위케이션을 실시하는 공주시에서는 옛 정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구들장이 있는 공주한옥마을에 서 숙박을, 근처 오피스공간에서 업무를,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제민천 카페에서 무료로 차를 즐길 수 있다.



공주 한옥마을.

천안과 아산, 홍성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상반기 위케이션은 평일에 한 해 진행되며, 숙소는 1인 1실이 원칙이다. 도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유학생 등의 참가도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기업 등 단체 참여를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플로깅(plogging,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행위) 활동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모든 시군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도 위케이션 누리집(https://workation.cnt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위케이션 충남 참가자 2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1%가 만족했고, 98%가 재참여 의향을 밝히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관광진흥과 041-635-3892 /충남문화관광재단 041-635-2994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이 궁금해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안홍진성·해미읍성 등 현장 공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굴현장을 공개한다.

이번 발굴조사 대공개는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화유산 발굴현장을 1년간 모두 공개하고 발굴체험 및 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연구원은 홍성 홍주읍성(3월)을 시작으로 태안 안홍진성, 태안읍성, 서산 해미읍성 등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을 도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축제, 공주 백제문화제, 해미읍성 축제 기간에는 축제와 연계한 문화체험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 도민이 접하기 어려웠지만 신기하고 생생한 고고학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공개 일정

일정	공개 발굴현장
3월	홍성 홍주읍성
4월	홍성 홍주읍성/태안 안홍진성
5월	홍성 홍주읍성/공주 수춘리고분군
6월	서산해미읍성/공주 수춘리고분군 /서천 한산모시축제
7월	서산 해미읍성/공주 수춘리고분군
8월	서산 해미읍성/공주 수춘리고분군 /천안 천흥사지/한산읍성 야행
9월	서산 해미읍성/공주 수춘리고분군 /천안 천흥사지/한산읍성 야행
10월	서산 해미읍성과 읍성 축제/공주 수춘리고분군
11월	천안 천흥사지/공주 수춘리고분군

체험의 장을 올 한해동안 계속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56-5051

중장년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 확대

올해 ‘마음봄 사업장’ 30인 이상

올해 충남도는 도내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봄 사업장’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충남정신건강관리망(SIMS)을 통한 정신 건강 검진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 연계(치로비 지원 등) ▲사업장 내 정신건강 증진 동아리 운영 지원 ▲대면 및 비대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사업주가 참여하는 정신건강 및 자살 예

방 캠페인 등이다.

사업 대상은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도는 올해 도내 15개 시군에 마음봄 사업장 총 130곳 지정을 목표로 시군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마음봄 사업장으로 지정한 80곳에 현관을 제작·배포했으며, 충남정신건강관리망(SIMS)을 통한 정신건강 검진 등을 추진했다. ▲사업주가 참여하는 정신건강 및 자살 예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내포마라톤대회

내포

마라톤대회

대한육상연맹 공증인료

2024.5.11.SAT 08:30

홍예공원 일원 (집결 : 충남도서관 앞)

1 2 3 4 5

1. 대회용품 2. 대회용품 3. 대회용품 4. 대회용품 5. 대회용품

574.000원

홍성, 예산 주민들에게 편의성

20명 이상 단체 참여시 참가비 50% 할인 혜택, 부스제공

NAVER 검색창에

2024 내포 마라톤대회

입력

http://nprace.com

참가신청방법

1. 내포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접속 후 참가신청

2. 개인 신청 단계 신청 선택 ▶코스, 기념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완료

하프코스, 미니코스 (10km) - 40,000원

건강코스 (5km) - 20,000원

공연·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즐기세요!

주최·주관

충남육상연맹 충청투데이

후원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홍성농도축협 충남경찰청 홍성경찰서 예산경찰서 NH농협은행 CDC 충남지방경찰청 충청남도법원 ALVOLA

홍주읍성 발굴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있다.

도정게시판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 주의 당부

충남도는 4월 12일 당진 삼전산수목원에서 충청남도 임우회, 당진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봄철 산불 예방·산지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녹지직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청남도 임우회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산을 찾는 등산객과 수목원 관람객 등에게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건조한 날씨에 따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임우회는 치산녹화와 산지 자원화에 앞장서서 우리 강산을 푸르고 울창하게 조성하고 퇴직 공무원 모임으로,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산림자원과 041-635-4505

소방복합시설 이름 지어주세요

충남도 소방본부는 청양군 비봉면에 조성 중인 ‘(가칭)소방복합시설’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안전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건립 중인 소방복합시설 홍보와 함께 참신한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충청남도 공모전’ 누리집에서 1인당 1편의 명칭을 응모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상 1편 30만원, 우수상 2편 각 20만원, 장려상 3편 각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복합시설은 청양군 일원 건물 10개동 규모로 건설 중이며, 충청소방학교, 119항공대와 소방장비교육관리센터 등이 입주해 9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도 소방본부 041-635-5567

제1기 취업 서포터즈 발대식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재학생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도립대 취업지원처는 4월 11일 대학 학생회관에서 취업 서포터즈 ‘잘해보JOB’을 출범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잘해보JOB’은 취업지원처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년고용정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맡는다.

취업지원처는 앞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 적극성과 활동성, 취업 등에 관심이 높은 12명을 선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취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매월 활동비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충남도립대 041-635-6791

두점박이사슴벌레 농가 분양

충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도내 거점 농가를 대상으로 두점박이사슴벌레 분양을 추진한다.

분양 신청은 4월 25일까지 시군구 지자체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분양 거점농가 3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곤충생산업 신고확인증에 사슴벌레류가 포함되어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 증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부와 격리돼 있으며, 환경 제어가 가능한 부식성 곤충 사육·관리·증식장 면적이 160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선발한 농가에는 인공 증식 두점박이사슴벌레를 100개체씩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326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	--	---

‘스타트업 파크’ 조성 힘 합친다

도·창업 유관기관, 공모 대응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충남도와 도내 창업 관련 유관기관이 ‘스타트업 파크’ 구축 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4월 8일 아산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업보육협회, 충남벤처협회, JB벤처스, 오를렌벤처스 등과 ‘충남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창업 교육, 멘토링,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 틱스)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초기 자본, 운영 자금 조달, 금융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 보증 및 금융 컨설팅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맞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아산시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정책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창업교육, 멘토링, 틱스 프로그램 및 투자지원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스타트업 초기 자본과 운영 자금 조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충남창업보육협회의 및 충남벤처협

회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맞는 창업 프로그램 제공 및 정책 제안을, JB벤처스와 오를렌벤처스는 성장 단계별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부지는 천안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내 유류부지를 확정했다.

도는 공모에 선정되면 인근에 조성을 완료한 그린스타트업 타운과 충남 창업마루 나비 및 창업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 및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혁신 창업 협력단지이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16

충남술·우수 용복합산업 제품 한자리에

도청 지하 1층 홍보관 개관

충남도는 4월 12일 도청 지하 1층에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홍보관은 도청사 방문객에게 우수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과 전통주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전시품은 전년도 충남술 토티(TOP10)으로 선정된 전통주 10종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융복합(6차) 산업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역 제품이다.

도는 전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 정보무늬(QR코드)도 부착해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도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홍보관’ 모습.

이번에 전시한 제품은 사과·생강·마늘·인삼 등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들로, 전통주·김치·인삼·한과 등

이다. 우수 6차산업 제품은 반기별로 전시하고, 충남술 토티(TOP10)는 차기 연

도 선정 때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간 롯데아울렛 부여점 광장에서 가경의 달을 맞아 ‘2024년 제1회 농촌융복합산업 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촌활력과 041-635-4080

충남공무원노조 제4대 위원장에 최정희 당선

윤종민 사무총장과 재선 성공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주택)는 제4대 임원선거에 단독 출마한 최정희(위원장), 윤종민(사무총장) 후보가 97.6%(953표)를 득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악성민원 강력 대응을 위한 자체시스템 구축 ▲불합리하고 낡은 공직 관행 완전 폐지 등이다.

최정희 위원장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제1대 조직국장, 제2대 사무총

최정희(사선 왼쪽) 위원장과 윤종민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합원 권리향상에 많은 소임을 다해줬다고 말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까지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041-635-5822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25일까지 접수…5월 중순 입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도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 모집대상은 콘텐츠 기업 및 유관 기관 등으로, 선정 이후 분사 이전 및 입주기간 동안 사업자 주소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아산시 배방읍 회망로 46번길 45-11, 45-7)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 등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간 입주 가능하며, 연장 평가 등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주변 동일·유사 면적 사무실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과 공용 OASIS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수요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홍보마

케팅 지원 사업 ▲투자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4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3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5월 중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09

제1000호 2024년 4월 15일 ~ 4월 24일 도정 05

‘스타트업 파크’ 조성 힘 합친다

도·창업 유관기관, 공모 대응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충남도와 도내 창업 관련 유관기관이 ‘스타트업 파크’ 구축 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4월 8일 아산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업보육협회, 충남벤처협회, JB벤처스, 오를렌벤처스 등과 ‘충남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창업 교육, 멘토링,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 틱스)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을

도정게시판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 주의 당부

충남도는 4월 12일 당진 삼전산수목원에서 충청남도 임우회, 당진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봄철 산불 예방·산지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녹지직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청남도 임우회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산을 찾는 등산객과 수목원 관람객 등에게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건조한 날씨에 따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임우회는 치산녹화와 산지 자원화에 앞장서서 우리 강산을 푸르고 울창하게 조성하고 퇴직 공무원 모임으로,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산림자원과 041-635-4505

소방복합시설 이름 지어주세요

충남도 소방본부는 청양군 비봉면에 조성 중인 ‘(가칭)소방복합시설’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안전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건립 중인 소방복합시설 홍보와 함께 참신한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충청남도 공모전’ 누리집에서 1인당 1편의 명칭을 응모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상 1편 30만원, 우수상 2편 각 20만원, 장려상 3편 각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복합시설은 청양군 일원 건물 10개동 규모로 건설 중이며, 충청소방학교, 119항공대와 소방장비교육관리센터 등이 입주해 9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도 소방본부 041-635-5567

제1기 취업 서포터즈 발대식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재학생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도립대 취업지원처는 4월 11일 대학 학생회관에서 취업 서포터즈 ‘잘해보JOB’을 출범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	--	---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정

전국 명소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새단장’

9월까지 마당·취식공간 새로 꾸며
공사기간동안 기존 점포 정상영업

전국적인 명소로 주목받는 예산상설시장이 ‘새 단장’에 들어간다. 예산군에 따르면 기존 운영하던 시장 마당 겸 취식 공간인 오픈스페이스(열린 공간)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가고 오는 9월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상설시장 내 기존 점포는 계속 운영한다. 점포 20곳은 오픈스페이스 앞 주

차장 부지에 설치한 임시 영업용 대형 텐트로 이동해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인근에 187면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 공사를 추진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등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개장 이후 연간 37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예산상설시장은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의 방문객 수를 함께 끌어 올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가 대상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3월 31일 기준 하루 평균 1만 3천 명이 방문하면서 올해만 누적 118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오픈스페이스 새단장 공사를 통해 예산상설시장에 쏟아지는 전국적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문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조성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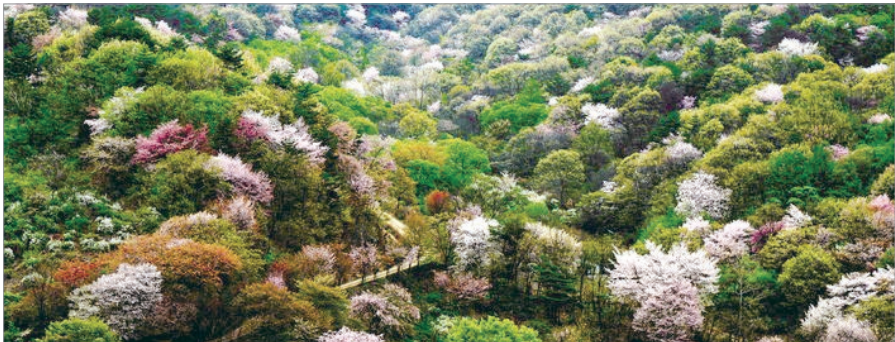


/예산군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 21일까지

스탬프 인증샷 등 이벤트 다채

금산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군북면 산안리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곡산골 산벚꽃 만개 모습

1일 최대 500명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주말 한정으로 운영된다. 산꽃슬래길의 숲속 작은 음악회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13개 팀이 참가해 산벚꽃을 닮은 잔잔한 음악으로 관광객의 걷는 여정에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곡산골 마을 주민들의 서각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숲속 미술관, 산꽃을 주제로 한 시(詩)가 있는 풍경, 압축포장 적자물(문포사일리지)과 매듭 공예(라크라메) 등을 활용한 친환경 포토존 등도 조성돼 문화예술 콘텐츠들 다채롭게 접할 수 있다. 체험의 경우 주말에 나만의 나무 문패를 제작해 보곡산골의 산벚꽃나무에 걸어 보는 나무 문패를 비롯해 꽃 열쇠고리·모빌, 전통연 등 만들기가 준

비돼 가족 방문객의 축제 재미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보곡산골만의 정취를 담은 음식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인 광대나물을 활용한 보곡산 비빔밥을 8000원에 판매하며 가족전과 산채전은 1만 원에 맞볼 수 있다. 군은 산꽃슬래길 관람객 안전을 위해 축제 기간 중 주말 한정으로 주변 도로를 통제할 방침이다. 통제 구간은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앞에서부터 신안사 앞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 단,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일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산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2024. 4. 8. ~ 4. 26.

신청대상: 도내 10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두루누리 가입필수)

문의사항: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계룡 금암 족욕장 운영 재개

지붕 방수·바닥정비 등 개선
12월까지 12시~오후 8시 문열어

계룡시 금암동 바닷분수광장 내 족욕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금암동 서금암 2길 7-9 일원에 위치한 금암 족욕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세터산공원 황

토길과 연계해 시민들께서 금암 족욕장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운영기간을 12월까지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기간 연장 조치는 지난해 이용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족욕장 이용 시민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족욕장 지붕 노후에 따른 지붕 방수작업, 바닥 노후화에 따른 바닥정비 등 시설 개선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족욕장을 찾아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계룡시

고령사회의 고관절 골절

공공의료원 칼럼

고관절은 엉덩이관절로 불리기도 하며 허리와 다리를 이어주고 체중을 지탱하며 걷기와 달리기 같은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다.

서산·태안 지역은 고령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많이 치료받고 있다. 골다공증성 골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관절 골절이 있으며 낙상사고로 인해 잘 발생한다. 계절별로는 겨울에 주로 발생한다. 고령자들은 고관절을 다쳐도 단순 하리통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를 미루거나 참는 상황도 많다. 이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복을 위해 오랜 침상생활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욕창, 폐렴, 패혈증 등 2차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하다. 고관절은 다른 부위의 골절처럼 석고 고정 같은 보존적 치료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빠른 시간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2차 합병증을 줄이는 길이며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수술방법은 주로 금속물로 내고 정하는 방법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사용하게 된다. 내고정술을 하는 경우 대퇴경부의 혈관에 손상을 적게 주면서 골절로 발생한 혈행장애를 재생시켜 골절유합이 될



성기룡
서산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공주 주미산 산림레포츠 메카 ‘변신’

2025년 말까지 스카이 사이클·네트어드벤처 등 조성
금학생태공원 등과 시너지 효과…관광객 유치 기대

공주시 주미산 일원이 ‘산림레포츠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주미산 일대를 산림레포츠 메카로 조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원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미산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 산림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모두 75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 사이클과 네트어드벤처 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9억원은 도비로 확보한 상태다. 먼저 금학생태공원 수원지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스카이 사이클은 수면 위로 설치된 와이어 위에 특수 제작된 자전거를 타고 이용자가 스스로 페달을 굴리는 체험시설이다. 약 20m 상공에서 수원지 경관을 감상하며 160m를 왕복하는 것인데, 경관 감상이 용이하며 외줄을 달리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강원도에서와 경남 김해시 등 전국 4곳만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나무 구조물과 숲을 이용해 그물을 배치한 놀이시설 ‘네트 어

드벤처’도 설치한다.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네트 어드벤처는 동시 수용력과 안전성이 높고 특히 자연 친화적인 산중 숲속 놀이시설로 유럽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시설 설치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히 금학생태공원을 비롯해 치유의 숲, 환경성 건강센터, 산림휴양마을, 사계절설매장 등 기존 주미산 일원에 조성된 다양한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미산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최원철 시장은 용역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주미산 일대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미된



주미산 산림레포츠 조감도

채형형 산림레포츠 메카로 조성해 전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주시

‘젯더미’ 서천특화시장 25일 개장

대공간 막구조 등 설치 마무리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행사 다채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 모습.

2층 구조 모듈러는 일반동점포 73개, 대공간 막구조는 농수산물과 식당

서산, 류방택 천문 테마공원 조성

‘밤하늘 산책원’ 등 행사 개최

서산시가 서산 출신의 여말선조 천문학자 류방택 기리기 위해 밤하늘 산책원 등 천문테마공원 조성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방택은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천문도 제작에서 천문 계산을 담당한 핵심적인 인물로, 만 원권 뒷면에 있는

교육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류방택 별축제’를 매년 5월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6회를 맞이하는 류방택 별축제에 8500만 원을 투입해 고유제, 미술실기대회, 에어로켓 발사대회, 천문 OX퀴즈, 합창단 공연, 창작 공연, 별자리 관측, 드론 라이트 쇼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관측 장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서산시

개의 식용·사육·도살·유통 종식 특별법 공포('24.2.6)



2027년 개(사체 또는 식육포함) 조리·가공·유통 전면금지

업종별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제조업자
제출기간	신고 2024. 2. 6. ~ 5. 7. 이행계획서 2024. 2. 6. ~ 8. 5.
접수처	영업장 소재지 시청·군청 담당부서



충남도정신문 연보

도정신문은 1990년 12월 15일 창간해 2024년 4월 15일자로 지령 1000호를 발행한다. 도민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경제·복지·농업 등 도정소식과 지역소식 등을 알리며 도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전달에 힘써왔다. 충남도 역사와 함께해 온 도정신문의 변화를 살펴본다.



“멀리있어도 고향소식 한눈에…자부심 느껴”

지령1000호 축하 특별기고

국내외의 1250만 충청 향우들과 함께 충남도정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도정신문은 1990년 12월 15일 창간된 이후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는 도정 종합정보매체로, 도민들이 경제·복지·농업 등 주요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면서 행정과 도민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도정신문은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언론 매체입니다. 도정 및 의회 관련업무를 비롯, 문화·생활정보, 충남의 역사와 문화, 오피니언 지면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하고 있어 좋습니다. 또한 도정신문은 도정과 도민, 출향 충청인을 서로 연결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도정신문 덕분에 멀리 있어도 어릴

적 기억이 담긴 고향, 충남의 정책을 알게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고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소식과 사람 이야기 등 푸짐한 읽을거리와 다양한 정보를 국내외 충청 향우들에게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와 해외 거주 충청 향우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충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1250만 충청 향우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향우회 중앙회는 향우간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며 단합과 협동을 통해 충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친목 단체로 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향우회 중앙회는 충청장학문화재단을 두고 있으며, 충청향우회 가족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이 지령 1000호를 맞을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의 고향, 충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도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의 격려와 관심속에,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민과 함께 도약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

인터뷰 - 도정신문에 바란다

도정 홍보의 중심축 역할

[강준식 대한도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



도정신문의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협연 충남도정이 더욱 약진할 수 있도록 도정 홍보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받는 소식지가 되기를 45만 충남도인을 대표하여 기원드립니다.

도정과 도민의 소통창구

[김영완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원장]



도정신문은 충청남도도와 도민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신문이 충청남도의 다양한 정책, 소식, 비전 등을 도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는 소통창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충남도정신문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밝히는 빛과 소금

[송대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해 온 도정신문의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충남인 다름’을 내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를 통해 지역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도민의 눈과 귀 되길

[유한중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연합회장]



1000호를 맞이한 도정신문이 충남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충남의 306개 지역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순찰·청소 선도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도 충남 7000여 명의 방범대원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도정신문은 충남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 전달로, 도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특히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관련 보도는 제도 홍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정진하시길 바라며 자치경찰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앞장

[전영환 충남발전협의회 상임대표]



도정신문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도민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으뜸가는 충남을 이룩하고자 하는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도정신문이 도민 화합과 충남 애향심 고취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실천

[박상철 충청남도 4-H 연합회장]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인터뷰를 통해 도정신문에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 많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소식들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실현되는 소식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배려와 소통 있는 소식지

[성낙구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



아름드리나무 그늘처럼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있는 시원한 도정신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위해 하겠습니다. 19만 충남 새마을가족을 대표해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 문화적 소양 함양 힘써주길

[이경란 충남도서관장]



도정신문이 도민에게 지식과 통찰력 제공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단단하게 해주는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성과 창의성·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호흡하길

[이종석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



충남은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 도민의 자긍심을 확보해 나가는 새로운 100년을 열고 있습니다. 지령 1000호를 맞는 도정신문이 미래를 향해가는 도정의 나침반이자 220만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소통하고 호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로 가득하길

[차호열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회장]



도정신문에 어려울 때 서로의 손을 맞잡는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화합의 소식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신문 1000호가 2000호가 될 때까지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소재와 사랑할 소재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히 장식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 제공

[최정희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난 33년 동안 도정신문은 도정과 도민을 잇는 창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도민들의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무수한 목소리를 듣고 대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구석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 도정 홍보 아닌 소통 창구 역할 강화

[특별좌담] 도정신문의 나아갈 방향은

편집자문 위 콘텐츠 평가·관광·문화·취미·생활 등 아이템 발굴



도정신문이 지령 1000호를 맞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독자, 도민의 관심이다. 홍석원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석호·박나라·김의화·신문웅 편집자문위원들이 3월 충남도청에서 만나 도정신문 지령 1000호를 맞아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 개선 방향, 신규 콘텐츠 논의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편집자 주>

-도정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홍석원 부위원장은 도정신문이 지령 1000호를 맞습니다. 도민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1000호 특집호와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석호 = 내일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관광 분야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 관광 코스나 새로운 명소 및 이벤트 소개 등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지면 구성 변화를 검토해 볼 시점으로 보입니다. 신문웅 = 어르신들의 가족들을 높이기 위해

본문 서체 크기를 키우고 글보다는 그래픽이나 그림 사진 등을 시각화 기사를 지금보다 더 늘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박나라 = 이제 농번기 시작하는데 문화달력처럼 농업달력을 만들어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나 농업인 혜택 등 중요한 알려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의화 = 아무래도 정보 유통에서 다른 작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업인을 위한 정보는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다루어 주면 관심을 것 같아요. -정책 비중이 높는데 개선 방안이 있다면, 이석호 = 도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콘텐츠가 몰려있어 무거울 수 있어요. 도정신문의 궁극적 목적은 도정을 알리는 것이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거죠. 도정 홍보와 함께 도민과 밀접한 각종 생활 정보, 역사 이야기 등을 제공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 종합 생활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석원 = 도정신문이 무거운 첫 번째 이유는 1

면에 있어요, 핵심 정책이 1면에 배치되면 소식지인데 무겁고 딱딱하다고 인식될 소지가 있죠. 이미지는 제목으로 충분히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웅 = 공감합니다. 지역소식을 시군 보도자료보다 지역신문 기사를 많이 활용했으면 해요. 현장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미담이나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문화나 관광 등을 홍보하거나 안내할 땐 지역별 균형을 맞춰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호 = 도민들을 위한 정보 홍보지로서의 역할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문화·생활정보 확대 어떻게 해야 하나, 김의화 = 문화달력 지면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좋은 콘서트 등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은 행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문화지면을 넓혀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코너 등 보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호 = 지면에서 문화생활 비중을 더 키워야 합니다. 노인을 위한 생활체육 등 건강 콘텐츠를 넣으면 훨씬 친근감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골프 잡치는 방법을 소개한다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겁니다. 신문웅 = 차예예방 코너 등 어르신들을 위한 코너를 확대하고, 시군 문화예술회관의 좋은 공연 소식을 확대했으면 해요. 김의화 = 지금 생활정보 지면은 퍼즐 조각을 맞춘 느낌이에요. 국민연금Q&A, 차예예방퀴즈, 일자리정보 등이 모여 있어요. 한 지면에 묶는 것보다 분산 배치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나라 = 생활정보 지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도정신문 독자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일자리, 차예예방퀴즈 등과 같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예요. 홍석원 부위원장 = 1000호 특집호부터 지면 개선에 대해 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도에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실제 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리=김정원 jwkim87@korea.kr



충남도정신문 지령 1000호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0년 창간한 34살 청년 충남도정신문은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풍성한 소식으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서해랑길을 걷다

4)59코스
(부사방조제~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모래사장을 걷고 있다.

바다와 들판에서 만난 사람들...봄은 향기부터 달랐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춘장대 해수욕장을 지나면서 서천에서 보령으로 접어들었다. 서해랑길 59코스와 60코스인 보령을 걷게 되는데 코스는 2개지만 길이는 꽤 길어 59코스 27.9km와 60코스 17.2km로 총 45.1km의 길이다. 59코스는 부사방조제에서 시작해 무창포 해수욕장과 남포방조제, 죽도 상화원을 거쳐 대천해수욕장에서 끝이 나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시원한 바다와 방조제가 만들어 놓은 논과 밭에서 봄을 맞는 사람들, 주꾸미가 제철인 봄의 어항,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자연과 사람의 어울림이 전해지는 서해랑길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완연한 봄, 서해랑길 59코스를 시작하면 서 만나는 부사방조제는 바다를 막아 드넓은 평야를 만들어 놓은 곧은 길로 막힘없는 시야가 시원한 곳이다. 방조제가 조성된 논과 밭에서 한참 바쁘게 일한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을 보면 손 유름 없는 바쁜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사방조제가 밥을 먹게 해주었지

부사방조제는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서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를 연결하는 방조제로 조수의 피해로부터 웅천읍 일대 농경지 보호를 위해 건설됐다. 방조제 위로 올라서면 춘장대 해수욕장과 서해가 그림처럼 아름답고, 들판으로 내려오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 농부의 푸근한 충정도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웅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부사방조제가 내 땅을 만들어줘서 지금까지 배부르게 먹고, 애들 가르치고 살았어, 이제 힘에 부치지만 봄이오면 뭘 힘이 생기는지 이렇게 논으로 나오게 되네” “쌀밥을 처음 먹었을 때 그 부드러움은 언덕이 본 사람은 몰라, 목구멍이 얼마나 간지럽던지 그냥 녹아 없어



죽도 상화원.

지더라니까! ㅎㅎㅎ” 부사방조제가 만들어준 것은 땀땀만이 아니었다 어르신 인생의 봄도 돌려 주었다.

“주꾸미는 지금이 제철이여”

일몰이 아름다운 무창포 해수욕장과 수산시장에선 주꾸미와 도다리 축제가 한창이다.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주꾸미를 사러 온 사람들과 상인들의 흥정하는 소리로 시장 안은 시끌벅적하다. 주꾸미를 사고 파는 분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느끼면서 서해랑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 생각해본다. 선조들은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봄의 기운이 넘치는 무창포항 이쪽저쪽을 둘러 보는 것만으로도 활력과 에너지가 충전됨을 느낀다.

향기로운 해송 사이에 머물다

남포방조제 중간에 위치한 죽도에 자리한 상화원은 자연 친화적인 정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남포방조제를 지나는 길에 잡



해수욕장 인근 민박촌.

간 들렀는데 해송 향기가 어찌나 시원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던지 3시간 정도를 걸어도 피곤함이 가시는 듯 했다. 상화원은 ‘조화를 숭상한다’는 이름 그대로 죽도가 지닌 자연미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조성된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특별한 것 없는 나무와 바다, 풀 한포기까지 나뭇의 봄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 특히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과 웃음이 가득했던 상화원의 4월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다.

‘춘캉스’ 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시골 풍경 가득한 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힐링 캠프의 한 종류라고 한다. 대천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길에서 만난 살구나무꽃 아름다운 민박집은 춘캉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했다. “내가 지금 여든 셋인데 30대 초반에 민박집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50년이 다 돼가네, 지금은 손님이 오면 받고, 없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면서 늘 청소는 하는데 힘들어서 그냥 휴내만 내고 있어” “손님중에는 살구꽃이 피는 봄이면 일부러 민박을 하려고 예약을 하는 손님들이 있어, 살구나무가 우리를 먹여살리고 있다고 봐야해 ㅎㅎㅎ, 그야말로 올해도 전화와서 이번 주 민박하러 온다고 연락왔어” 시골의 정이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 진정한 의미의 춘캉스이자 힐링여행이 아닐까? 살구나무꽃이 봄바람에 하얗게 떨어져 흩날려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왜 보석인지를

민박촌을 지나 도착한 대천해수욕장은 대학 신입생들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대천해수욕장은 해변이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서 안전하게 뛰놀면서 봄을 즐기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이미 여름이 성큼 와

보인다. 특히 모래 사장에서 해맑은 얼굴로 봄을 즐기는 어린이들이 눈길을 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세상 어느 것보다 반짝이는 난방울로 봄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봄에 집중하는 모습은 사람이 꼭 똑 떨어지는 달콤한 선물 같다. 서해랑길 59코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 그들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절로 행복한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었다.

보령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아는 대천해수욕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조개껍데기가 부서져 만들어진 해변을 걸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요즘은 익사이팅 놀이기구들까지 많이 생기면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찾는 휴양지로 자리잡고 있다. 노을을 보면서 짙라인과 모노레일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좀 이르기 하지만, 대천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1시간 안팎 걸리는 근해 섬 여행을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걸어보니 tip 봄 바람이 거세다. 길 위에서는 갑자기 불어오는 강풍에 낙상이나 미끄러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4월은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다. 항상 걷기 전에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고 황사 등이 심할 때는 무리해서 걷는 것보다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만약 반드시 걸어야한다면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활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소나기 등을 대비하기 위한 비옷이나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박 현 영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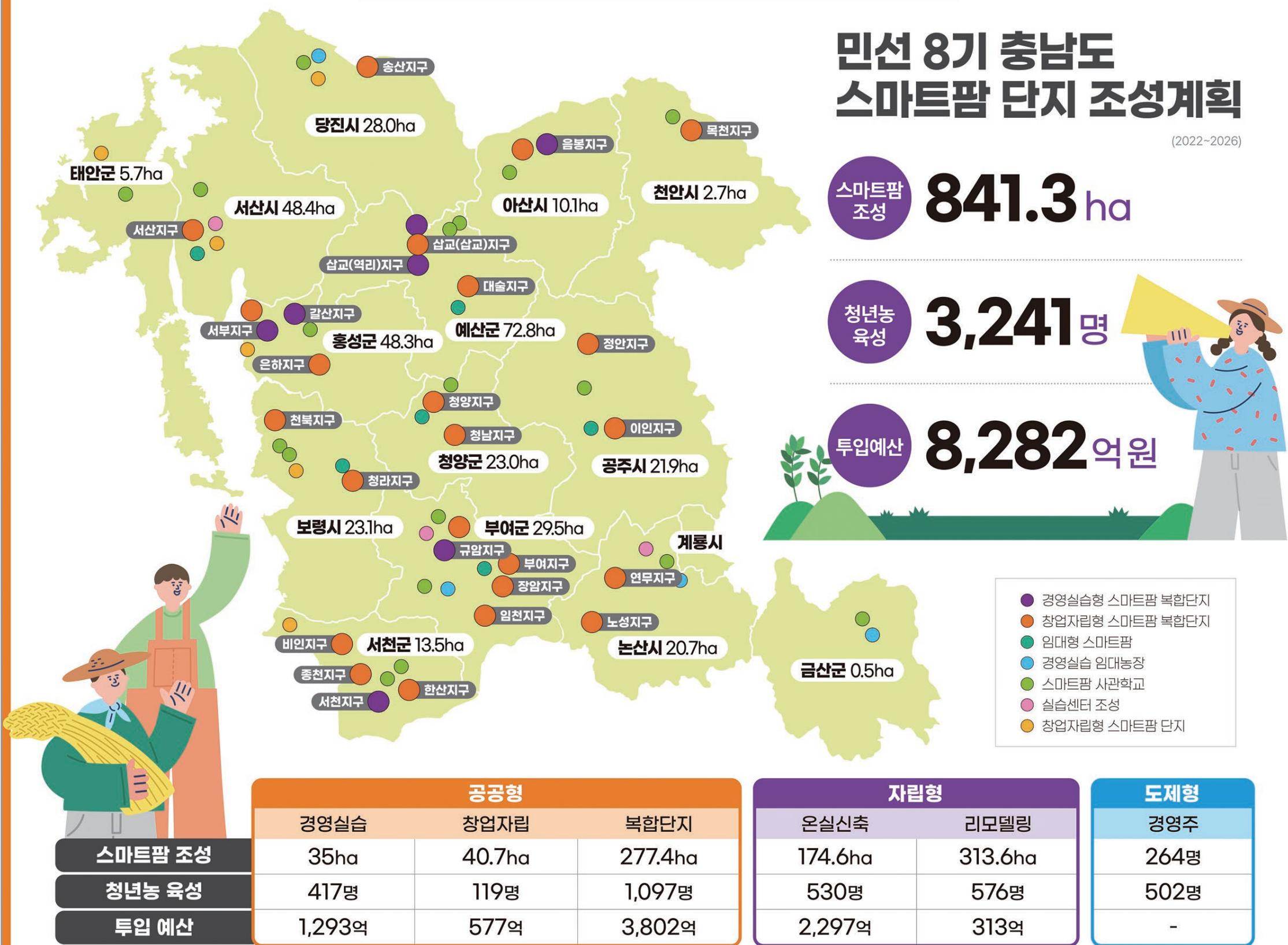


그래픽 |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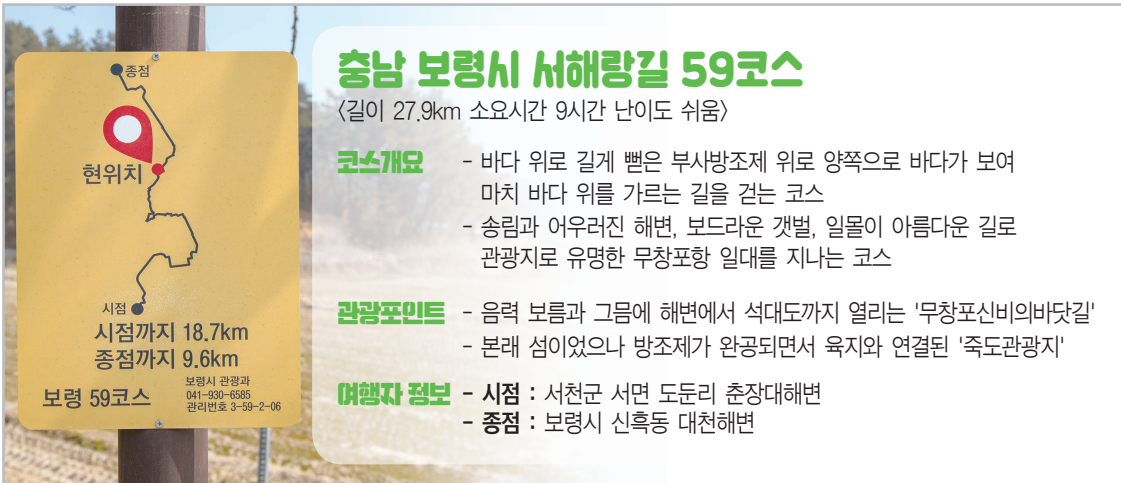
스마트농업 수도 충남

한눈에 보는 스마트팜 창업

②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농창업 지원체계



청년 농창업 지원체계



농업농촌에 진심인 청년! 스마트농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

청년 열정을 신용으로, 충남도가 화끈하게 지원합니다!

문의 충남도 스마트농업과 ☎ 041-635-4042, 4043

남녀가 평등한 일터. 모두를 위한 일자리 양성평등 이야기

Q.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몇 번째일까요?

A. 안타깝게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래 줄곧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남성의 중위임금 대비 여성의 중위임금 비율)는 31.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0%를 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1.6%와 비교하면 2.7배에 달합니다. 이는 일하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유독 남녀 임금이 크게 차이 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꼽아보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전하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지위를 가지며 임금이 낮은 업종과 직업에서 더 많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Q. 일터에서 나타나는 유리천장은 차별인가요?

A.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1970년에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능력이나 자격이 있음에도 여성,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가로막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리천장은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차별로 잘 인식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을 가리킵니다. 2013년부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나라는 어김없이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Q. 생애주기에 따라 왜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달라지나요?

A.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갖는 20대 중후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30대 초중반에 들어서면 여성은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남성은 생애사건에도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지만 여성은 경제활동을 멈추는 비자발적인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이처럼 경력단절은 한국 성별의 일자리 질을 나쁘게 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가사 분담, 부모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같이 돌보는 역할 나눔을 지금부터 실천하면 어떨까요?



젠더 퀴즈

Q. 생애주기에 따라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를 표현하는 곡선을 무엇이라 할까요?

(남성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 초중반에 현저히 떨어졌다가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현상)

- ① M자 곡선 ② U자 곡선

/안수영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참고자료: OECD Statistics, 기획재정부 경제세종터

남은 14W ① : 15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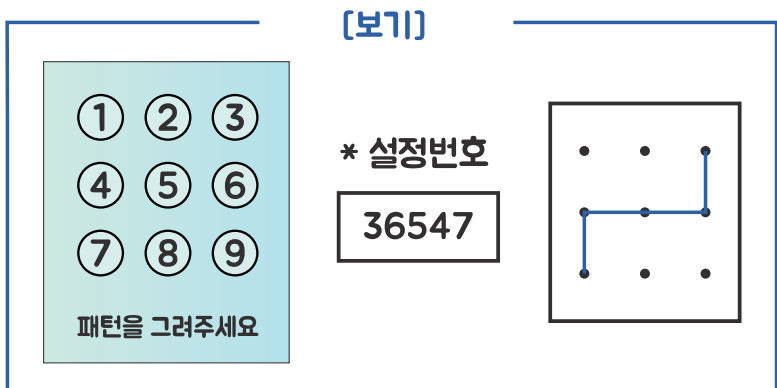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원이노베이션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명	041-582-6117	연 3,000만원
천안	(주)송광프라스틱	물류 사무원	1명	041-567-2205	연 4,200만원
천안	(주)선명	기타 전자 부품·제품 조립·검사원	1명	041-908-7499	연 3,000만원
천안	(주)대한씨에스씨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557-8035	월 250만원
아산	에스아이티(주)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1명	041-532-6800	연 3,000만원
아산	(주)태성콘크리트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541-5371	연 3,300만원
아산	조물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549-6842	연 3,200만원
아산	(주)도스코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	010-9181-1003	연 3,200만원
당진	(주)삼성팩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명	041-362-3335	연 2,700만원
당진	(주)에이식	수상 운송 사무원	1명	041-352-3802	연 4,000만원
당진	(주)영도	제조 단순 종사원	4명	010-4117-2136	월 230만원
당진	(주)덕우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350-2764	월 240만원
서산	홍일호스	배송·납품 운전원	2명	041-666-0136	연 4,650만원
서산	한국지엠서산서비스센터(주)	자재·구매 사무원	2명	041-664-8255	연 4,500만원
서산	(주)서해광업	지게차 운전원	1명	042-628-1380	월 300만원
서산	(주)영재	자재·구매 사무원	1명	041-665-9052	연 3,500만원
공주	(주)소룩스	자재·구매 사무원	1명	041-855-6847	연 3,100만원
공주	(주)테크헤브	제조 단순 종사원	3명	041-881-3375	연 3,300만원
공주	철성콘크리트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	1명	041-852-1342	월 250만원
공주	(주)제이에이엔지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정비원	1명	041-854-4240	연 3,000만원
논산	산지축산유통	배송·납품 운전원	1명	041-734-8114	월 250만원
논산	길산피아프(주)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1명	041-732-9994	월 330만원

|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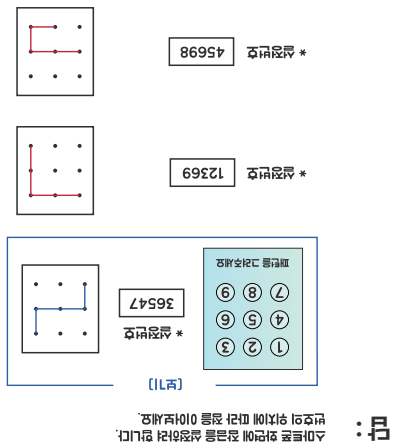
스마트폰 화면에 장금을 설정하려 합니다.
번호의 위치에 따라 점을 이어보세요.



* 설정번호 12369

* 설정번호 45698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위드실버



: 15

4월 문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8	19
					이동섭의 프랑스 예술여행 기간: 2024-03-19 ~ 05-21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시간: 10:00 비용: 과목당 100,000원 문의: 1566-0155	봄맞이 소리꽃 콘서트 장소: 충남도정 문예회관 대강당 시간: 19:30 비용: R석_50,000원 / S석_30,000원 / A석_10,000원 문의: 041-630-2914
					가족음악회 프랑수아 메츠 브라스 앙상블 기간: 2024-05-02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041-840-2204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공주뮤지컬쇼 기간: 2024-04-20 장소: 예신교 삼교교도청대교 600 문예회관 시간: 11:00 비용: 10,000원 ~ 25,000원 문의: 041-635-3815
					모짜르트 <코지 판 투테> 기간: 2024-05-02 장소: 천안시청 봉사홀 시간: 11:00 비용: 일반석 10,000원 대상: 8세이상 문의: 041-521-5156	기획공연 콘서트 <하모니이즈 The Show Choir> 기간: 2024-04-18 ~ 04-19 장소: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S석_10,000원 / A석_5,000원 대상: 초등학교이상 관람가 문의: 041-661-8023
					2024 아트매직쇼 기간: 2024-05-06 장소: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1:00 비용: 전석 20,000원 대상: 24개월이상 관람가능	마술피리 기간: 2024-04-18 ~ 04-19 장소: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S석_10,000원 / A석_5,000원 대상: 초등학교이상 관람가 문의: 041-661-8023
					라스트 콘서트(LAST CONCERT)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기간: 2024-06-15 장소: 유관순체육관 비용: R석 16만 5000원 S석 14만 3000원 A석 12만 1000원	알라딘과 요술램프 기간: 2024-04-26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0:10 비용: 20,000원 대상: 24개월이상 관람가능 문의: 041-350-2911
					NEW 뮤지컬 반개맨 전설의 시작 기간: 2024-05-25 ~ 05-26 장소: 천안시 성문화회관 시간: 11:00 비용: 1층 66,000원 / 2층 44,000원 문의: 041-521-3745	마술사 최해명의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 시즌1 기간: 2024-04-27 ~ 4-28 장소: 천안시성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1:00 대상: 24개월 이상 문의: 041-521-3745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기간: 2024-04-24 ~ 04-28 장소: 이순신종합운동장	과외마술콘서트 기간: 2024-04-24 ~ 04-28 장소: 이순신종합운동장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2024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증상 및 사망 예방을 위한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4월 15일부터 개시

접종대상

5세 미만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국민 중 23~24월기 XBB.1.5. 백신 기접종자

접종백신

XBB.1.5. 단가백신(하이지, 모데나, 노바백스)

접종장소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일정

2024.4.15.(월)~

Q. 접종과 확인방법

감염병포털(ncv.kdca.go.kr) * 코로나19 예방 * 예방접종 *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이 예약 없이 당일 접종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제86회 정기연주회

장소: 천안시청 봉사홀
시간: 19:30
비용: 4,000 ~ 8,000 원
문의: 041-521-5156



이벤트스 라이브 <EBS친구들이 뭉쳤다>

기간: 2024-04-20
장소: 사비마루 공연장
시간: 14:00
비용: 유료
문의: 041-833-8562

반짝반짝 빛나는 마술사의 방(공주)

기간: 2024-04-20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비용: R석 35,000원
대상: 24개월이상 관람가능
문의: 010-3013-4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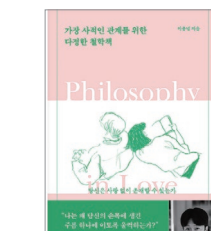
마술사의 방



사랑에 관한 철학적 접근



사자들의 서재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 /이충녕/클레이하우스/2023

수많은 인간관계에 지치셨나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그러한 질문에 철학적 사고를 하게 하는 책이 있다.

먼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된다.

신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했다는 이야기부터, 정신분석학에 따라 인간 심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의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지, 우리는 태어났기부터 필연적으로 놓여나면서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거나 공연 예약 및 입장 시 사람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혼자 멀리 떠날 때나 인터넷으로 쉽게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관계도 생겨나게 되었다. 스 타와 팬의 관계, SNS친구, 메타버 스 내 관계를 등이 있다. 이 때, TV 속 스타를 향한 사랑, 온라인 내에 서의 사랑도 사랑이 아닌 것으로 치 부할 수 있을까? 문명이 변하며 사 랑에 대한 관념 모두 변해왔다. 그 대로인간 인간은 영영 혼자이길 원 치 않는다 는 것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순수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 다. 언제나 관계 속에서의 자유다. 이기심에 눈먼 사람은 이 관계성을 한계나 구속, 제약으로 느낀다.” “책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반 면 누군가를 책임 있게 사랑하는 사 랑은 이런 관계성과 의무의 토대 위 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책은 다각도의 관점에서 인간 관계와 사랑에 대해 들여다본다. 그 중 하나는 사회가 변하며 다양해진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한 탐구이다. 인터넷의 발달 및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거나 공연 예약 및 입장 시 사람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혼자 멀리 떠날 때나 인터넷으로 쉽게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관계도 생겨나게 되었다. 스 타와 팬의 관계, SNS친구, 메타버 스 내 관계를 등이 있다. 이 때, TV 속 스타를 향한 사랑, 온라인 내에 서의 사랑도 사랑이 아닌 것으로 치 부할 수 있을까? 문명이 변하며 사 랑에 대한 관념 모두 변해왔다. 그 대로인간 인간은 영영 혼자이길 원 치 않는다 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 외에도 책에 서는 죽음, 돈(자본주의) 등 다각도 에서 사람 간의 관계, 사랑이 무엇 인지 철학적으로 제시한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서 살아가며, 어렵거나 즐겁다고 느끼는 것도 제각기 다르다. 그러니 자신만의 사랑의 의미를 고민해 보 기 바란다.

/박세진(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3대째 친환경 농법, 건강·맛·미래 다 잡았다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아산 주원농원 김후주 대표

국내 최초 유기인증 배 농원 명맥 이어
“농업 중요성 알리는 것도 농업인 역할”



주원농원 김후주 대표가 하얀 배꽃에 직접 꽃가루를 묻히는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농기계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아산시 둔포면에 준비하게 들어선 배 과수원에서는 만개한 하얀 배꽃에 직접 꽃가루를 묻히는 인공수정 작업이 한창이다. 여러 과수원을 사 이 다른 농원에서 뿌린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지 않도록 험늪물과 높은 담으로 구분되어 있는 농원을 찾았다. 이곳은 1958년 개원한 주원 농원으로 6년 전 김후주 대표(35세)가 3대째 경영을 이어받았다.

김후주 대표는 “주원농원은 국내 최초로 유기인증을 받은 배 과수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농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1만 5000평 규모로 연 10t의 배를 수확해 판매하며 농장 내에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HACCP인증을 받은 가공 시설에서 농장에서 수확한 배만을 사용해 배즙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농원은 비료, 농약, 경운, 제초하지 않는 4無 농법을 쓴다. 김 대표는 “농약 대신 유황과 석회를 섞어 살균제로 사용하고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 병충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천연성분만을 사용하고 있어 벌레 박멸은 어렵지만 개체수나 밀도를 조절해 양묘의 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성분이 없어 농원 땅속에는 지렁이, 두더지 등 생물이 살고 있고 거미줄과 무당벌레, 잡초도 무성하다. 지저분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잡초들의 뿌리가 땅을 단단하게 잡아줘 토양 유실을 막아주고

각종 병해충으로 과일나무들의 면역력이 높아져 과수화상병 등 전염성 질병에도 강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유기농법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몸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농원을 이어받은 후 판로 개척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친환경 학교급식, 한 살림, 농업에 주로 납품하던 이전에 비해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직거래 비율이 크게 늘었다. 그는 “제품의 상태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도 농부 모두 스마트스토어가 가장 편리하다. 후기나 사진 등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농업, 유기농과 친환경 등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 토론회, 연구, 저술, 농업인 단체 등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발전이 있을 것”

이라며 “사람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에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청년농업인

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농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을 이어나갈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생산 농산물은 희귀해지고 가격이 치솟아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에는 한계가 있다. 누군가는 노지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배 농업인에게도 “농업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몇 년 이상은 자신이 꿈꾸는 작목과 규모에 맞는 선진농가에서 미리 일을 배워보고 도전하기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해문 deun127@korea.kr



부엉이들의 데이트 홈쳐보실래요?

손현미 작가 서산시 5월 12일까지
‘상상부엉이의 사랑이야기’ 전시



보지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귀여운 부엉이를, 이들이 데이트를 한다? 마치 자신이 사람인 양 달달한 사랑을 전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가’를 펼친다.

손현미(사진) 작가는 유독 부엉이만 그리는 것에 대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 보고, 잘 듣는 것”이라며 “잘 본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작품 속의 부엉이를 하나하나에는 손 작가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빛과 행복’이 모두 들어 있다. 정대균 서해미술관 관장은 “서로 사랑하는 부엉이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시대 최미향 기자



이원면 소나무봉사단 ‘사랑의 밀반찬 나눔’

태안군 이원면 소나무봉사단(회장 한옥자) 회원 20여명이 지난달 28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에 팔을 걷었다.(사진) 태안발전본부의 지원을 받은 이번 봉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르신들에게 온정이 담긴 반찬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한옥자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요리하여 드시기 어려운 남성

독거어르신께 직접 만든 밀반찬을 전달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을 건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운치 이원면장은 “마을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소나무봉사단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간태안신문 김동미 기자

충남도립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선거는 발전의 계단을 오르는 국민의 권리 행사

내포칼럼



편세환
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표를 얻은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시영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948년 7월 24일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식이 있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했다.

우리는 이때부터 선거라는 것을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선거에 대한 법규와 세부 규정이 정립되었고, 시대에 따라 선거제도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처음 국회의원 직접선거가 실시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유권자가 적어 출마자의 기호를 숫자가 아닌 막대기 표시로 실시했다. 화성제를 이용한 가두방송을 했고, 군중이 모여 정견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또 출마자들은 공공연히 선물공세를 펼쳐도 묵인 하는 시대였기에 선거 때가 되면 아낌없이 음식점과 술집이 성황을 이루어 혼잡한 상태였고, 소위 고무신 선거기, 돈 봉투선거기 하는 용어가 생겨났다.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제도이기에 차츰 민주 선거가 정착되면서, 초등학교 반장까지 직접선거를 통하여 뽑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모든 선거는 거의 직접선거로 실시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문화원장, 노인회장, 농업협동조합장

을 비롯한 각종 조합장, 새마을 금고 이사장, 읍면자치위원장, 체육회장 기타 단체장 등을 뽑는 많은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전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선거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은 도시나 지방에서 한 번 선거가 치러지면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층 사이

말과 심지에는 그들 조상과 가족에 대한 흠결까지 들먹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당 간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 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전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선거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은 도시나 지방에서 한 번 선거가 치러지면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층 사이

유권자들로부터 한 표를 얻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했으나 말 한 마디 잘못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모두의 축제인 선거는 운동경기를 감상하듯 즐기는 여유가 필요

현실은 저속한 막말과 상대후보 흠결찾기,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

선거는 대립과 비판이 아니라 시민의 값진 참정권을 실현하는 기회

”

에 깊은 골이 생기기 되고 한 번 생긴 골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불통의 반목이 계속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모든 선거는 출마자나 유권자 공히 한바탕 축제로 재미있는 운동 경기를 감상하듯 함께 즐기는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성숙한 시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다. 출마자들의 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막

다 있다. 당선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후보시절 내 놓았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낙선자는 안타깝지만 자기의 노력이나 내 놓았던 비전이 미흡했음을 자인하고 당선자를 축하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개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계단을 오르는 국가적 행사며 신성한 권리행사이다.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빈 병은 소리침데기와 같은 부류지요.

소주가 담겼던, 주스가 담겼던, 잼이 담겼던.

‘담겼던’, 과거형입니다.

현재는 비어서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술가락을 꽂으면 마이크가 되겠고요.

악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관악기.

호이호이. 해녀들의 숨바소리를 흉내 낼 수도 있겠고요.

빈 병에 누가 와서 살기도 하지요.

인연을 찾는 여정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소주 팻말을 달았던 빈 병은 마침내 존재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다른 문재를 달았습니다.

빈 병

소주가

이사 가면

참기름이

들어와 산다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김미희
시인·동화작가



9482억원 규모 추경안 등 45개 안건 심의

제351회 임시회 15일~24일 10일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등 중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5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 동의안 2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등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6조 5419억원에서 9482억원(5.7%) 증가한 17조 4901억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22~23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며, 24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4명, 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 예고

학교 ‘먹는 물’ 관리 강화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 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 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화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해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천안 9)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만 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 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박정수 의원(천안9)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기존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서 지원되는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보다 규모가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됐다. 작은축제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로, 주민화합, 전통 계승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축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및 선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축제 평가단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충남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뇨병 학생’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윤희선 의원(태안 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만 1473명에서 2022년 1만 4480명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부터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의료비 지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구매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교육 통해 환경보호 인식 제고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 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학교산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산림 환경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노인의 경륜과 청년의 패기로 시너지 내야”



김용규(아산2·국민의힘)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노인정책과 청년정책의 동행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발표(2022년 9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204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넘어선다고 예측했다. 노인 빈곤율과 청년 고용률 또한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OECD가 본 한국은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로 평가됐다.

충남 노인정책과 청년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충남 청년인구(2023년 기준)는 50만 12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매년 1만 여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인구의 유출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충남 전체에 걸쳐 모든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청년층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직업과 주택을 꼽는다.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노인의 경우는 현재 충남지역 인구가 43만 7000명(22년 12월 기준)으로 도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며, 이 중 3분의 1이 독거노인이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악화하고 있어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시급하다.

노인복지 혹은 청년 유입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충남도는 그동안 많은 노인과 청년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에 관한 결과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그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살펴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단언컨대 향후 10~20년 안에 읍면동의 노인들이 노쇠해 일과 거동이 모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면 소재지 중심으로 다가구 고령화 아파트 단지를 활성화해 가야 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빈집 활용이나 LH를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정책과 청년정책이 동행하는 방안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노인과 청년정책 동행은 이상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실적 접근 방안으로 노인이 주를 이루는 구도심에 청년이나 신흥 가족을 소규모로 들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야 한다. 정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귀농·귀여해 청년과 노인의 간격을 좁히며 함께 사는 환경을 구축해 가야 비로써 기분이 바로 설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노인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자식들을 키워주신 부모님 세대를 잘 모셔야 한다. 면 소재지에 의료·건강·체육·문화 시설이 복합된 다가구 주택을 형성해 노인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면 된다.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와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프로그램 등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투자해야 한다.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이 인구소멸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소멸 지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주차장과 병원 등이 포화상태가 돼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도 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환경에 야 할 일이지만,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행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360!

알퍼보GO

진드기매개 감염병은 **고열(38℃)과 두통, 구토** 등을 동반하므로 몸에 이상이 없지 살피십시오.

이외에도 열소만·백혈구 감소에 따른 열노, 혈변과 피로감, 근육통, 경련, 의식 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과 **다발성 장기부전 동반 가능**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360!

찾아보GO

아외 활동(작업) 후 귀가 즉시 **몸에 붙은 진드기, 진드기에 물린 자국, 검은 딱지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360!

치료하GO

진드기에 물렸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증상은 코로나19 증상 유사하므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지역민원상담소 현황

천안1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15, 3층 ☎ 041-554-0008	계룡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 042-840-5719
천안2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 041-566-3702	당진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 041-358-3250
천안3	천안시 서북구 미라 16길 14 ☎ 041-574-0007	금산	금산군 금산읍 후곶전길 53, 2층 ☎ 041-751-5555
공주	공주시 백이고을길 17-12, 2층 ☎ 041-855-2242	부여	부여군 부여읍 부강대로 28, 2층 ☎ 041-835-3330
보령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 041-936-5388	서천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 041-952-1650
아산1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 041-547-5927	청양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301호 ☎ 041-943-0613
아산2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221, 2층 ☎ 041-546-1101	홍성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 041-633-2333
서산	서산시 고운로 153, 2층 ☎ 041-665-1235	예산	예산군 예산읍 군정1길20, 6층 ☎ 041-333-9606
논산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 041-734-0064	태안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61, 1층 ☎ 041-675-0313

※각 지역별 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고향 충남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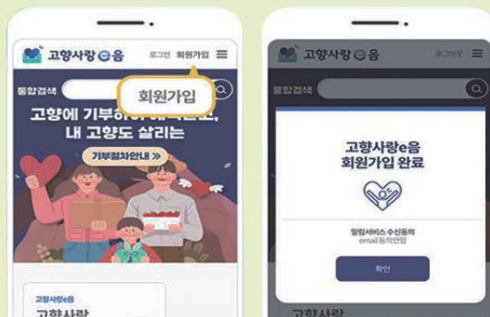
주민복지
사업시행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

PC/모바일에서 기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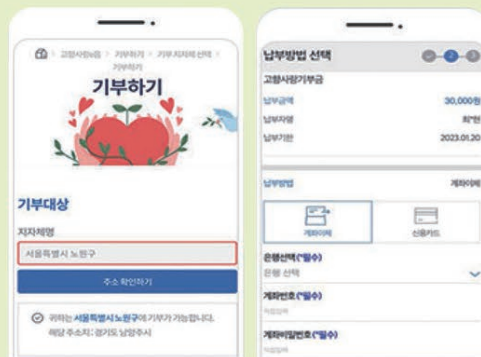
- 홈페이지 주소 : 고향사랑e음.메인 (ilovegohyang.go.kr)
- 시스템 문의 : 운영지원단 (☎1522-2431)

회원가입



- 1 우측 상단 회원 가입 클릭
- 2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 3 회원가입 완료

기부하기



- 1 로그인 후 고향사랑기부하기 클릭
- 2 기부지자체 선택
- 3 기부가능여부 확인(기부자 주소지 확인)
- 4 기부금액 입력
- 5 답례품 제공여부 확인
- 6 기부금 납부하기

공주시 답례품



고맛나루 쌀



공주알밤



공주맛밤



알밤한우



밤·아카시아 꿀



밤수제요거트



계룡백일주



공주밤약과



공주인절미



밤파이



공주페이(지역화폐)



무령왕 왕비금제관식



한옥마을 숙박할인권



공주시산림휴양미 야영 데크권



(관광기념품) 3D입체퍼즐 공산성